

# 광주, 'e스포츠 중심도시' 만든다

'e스포츠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민국 e스포츠 포럼'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단순 게임을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한 e스포츠의 현황과 확장성, 핵심 어젠더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포럼이다.

포럼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시,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재단, 한국PCO협회가 후원한다. K컨벤션육성지원 공모사업에서 주식회사 더킹핀(대표 배미경)의 제안이 선정돼 열리게 됐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이정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e스포츠의 과거·현재·미래'에

30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대한민국 e스포츠 포럼' 개최

단순한 게임을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e스포츠의 확장성·가능성 등 진단

대해 설명한다. 세션2에서는 'e스포츠산업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김동현 박사(전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장),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남윤승 전 게임전문채널

OGN 제작국장, 이지훈 젠지E스포츠 단장이 e스포츠와 메타버스, 방송중계, 프로그래머 및 선수단 운영 등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3은 e스포츠 중심도시 광주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유찬 전남과대학 교수의 기초 발제에 이어 박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 정연철 호남대 교수,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이지훈 젠지E스포츠 단장이 한 자리에 모여 e스포츠 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선도와, 대중화, 활성화 방향을 논의한다.

박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20년 12월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개관했고 다음 달에는 광주이스포츠 교육원 개관식 예정으로 광주는 e스포츠 관련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e스포츠를



광주의 주요 어젠더로 지속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까지 사전참가 신청을 받는다. 행사는 위드 코로나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유튜브 채널(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에서는 실시간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상세 문의는 운영사무국(070-4238-6766)으로 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특급 루키' KIA 이의리의 2021 시즌

### "아쉬움 많지만 자신감 얻었다"

"내년에는 끝까지 뛰어야죠"

스포츠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특급 루키'지만 이의리의 2021 시즌은 '아쉬움'이었다.

좌완 루키 이의리는 암울했던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희망이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는데도 선발 한자리를 꿰차고, KIA 팬들은 그의 등판 날을 가장 기다렸다.

등장과 함께 타이거즈 미래가 된 그는 프로 데뷔 시즌에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경쟁한 선수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에서도 이의리는 스타였다. '막내'였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10이닝을 소화했고, 올림픽 참가 선수 중 탈삼진 1위(18개)도 차지했다.

거침없던 행보에 KIA 팬들은 명맥이 끊겼던 '타이거즈 신인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당연히 이의리의 차지가 되는 것 같았던 트로피의 행방은 오리무중. 유난히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의리는 부상으로 막판 스피트를 하지 못했다.

이의리는 9월 12일 NC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손톱이 깨지는 부상으로 3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이후 재활군으로 내려가 재정비 시간을 가졌지만, 마운드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뎈 기약 없는 재활에 들어갔고, 10월 21일 한화전 등판을 앞두고는 손가락 물집이 터져 경기 직전 등판이 무산됐다.

이의리는 올 시즌을 '아쉬움'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내 잘못이다. 내가 몸 관리를 못했다. 부상 없이 시즌 끝까지 잘 치르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자신감"을 얻은 시즌이기도 했다.

이의리는 "프로에서 이 정도로 통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잘 됐다. 내년에 더 잘 던지기 위한 발판이 됐다. 몸 관리만 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체인지업과 작구가 통했다. 프로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웨이트를 통해 작구 힘이 좋아졌고, 그만큼 변화구의 위력도 더해졌다. 구종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이의리는 "잘 안 되던 체인지업이 잘 됐다. 작구가 되니까 체인지업도 잘 받쳐줬다. 프로에서 처음 하다 보니 힘도 좋아졌고,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며 "다른 구종도 잘 던지는데 많이 안 섞어 던진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에서 훈련이 재미있고 좋다. 시즌 내내 많이 뛰었는데 로테이션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자신의 20번째 생일날이었던 6월 16일이다.

안방에서 SSG를 상대로 선발 등판을 했던 이의리는 경기가 끝난 뒤 "20년 인생 최고의 생일을 보낸 것 같다"고 웃었다.

이날 오전 이의리는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 밤에는 5.2이닝 무실점 10K의 역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생일날 마운드에서 국가대표 발탁 이유를 보여주었고, 승리까지 거머쥔 것만으로도 만족할 날이 됐다.

프로 첫 시즌에 팀은 물론 국가대표로도 최고 활약을 했지만, 막판 부상으로 '신인왕'을 놓고 롯데 최준용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의리는 "신인왕을 차지하면 좋겠지만 마음을 비웠다. 못 받으면 앞으로 잘해서 FA를 노리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다.

특별한 막내로 팬들을 웃게 했던 이의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선배'가 됐다.

2022 신인들이 합평 캠프에서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고, 19일에는 내야수 김도영과 윤도현이 광주 캠프로 건너온다. 윤도현은 광주일고 시절 함께했던 직계 후배이기도 하다.

이의리는 "더울 없이 지내는 게 좋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 눈치 안 보고 자기 것만 하면 된다. 그게 가장 어렵기는 하다"며 웃었다.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남겼다.

이의리는 "1년 동안 팬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힘내서 잘 던진 것 같다"며 "마지막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내년에는 끝까지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의리(오른쪽)가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광정철 코치와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자비한 잉글랜드

산마리노 10-0 대파

케인 폭풍 4골 15일(현지시간) 산마리노 세라발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1조 최종전 산마리노 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28)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해리 케인은 혼자 4골을 넣으며 팀의 10-0 대승을 견인했다. /연합뉴스

###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 이탈리아는 플레이오프 '가시밭길'

잉글랜드가 산마리노를 무려 10-0으로 대파하고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FIFA 랭킹 5위 잉글랜드는 16일 산마리노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1조 최종전 산마리노와 원정 경기에서 혼자 4골을 터뜨린 해리 케인의 활약을 앞세워 10골 차 승리를 거뒀다.

8승 2무로 예선을 마친 잉글랜드는 조 1위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된 잉글랜드는 1966년 이후 56년 만에 두 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한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4위를 했다.

전반 6분 만에 해리 매과이어의 골로 포문을 연 잉글랜드는 상대 자책골과 전반 27분 케인의 페널티킥으로 3-0을 만들었다.

케인은 이후 전반 31분에 추가 골을 넣었고, 39분 페널티킥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한 뒤 전반 42분에도 한 골을 넣어 전반을 6-0으로 마무리했다.

폴란드는 헝가리에 1-2로 졌지만 조 2위를 차지, 10개 조의 조 2위 국가들이 모여 치르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행에 제도전해 됐다.

C조의 스위스도 불가리아를 4-0으로 완파하고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C조는 이날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승점 15로 동률이었다. 그러나 스위스가 불가리아를 꺾은 반면 이탈리아는 북아일랜드와 0-0으로 비겨 본선 직행 티켓은 스위스 차지가 됐다.

FIFA 랭킹 4위 이탈리아는 58위 북아일랜드에 패배 같은 무승부를 당하는 바람에 플레이오프가

시발길을 걷게 됐다.

이날까지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는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독일,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스페인, 세르비아, 잉글랜드, 스위스 등 11개 나라가 진출했다.

유럽에서는 G조의 1위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덜란드가 승점 20으로 1위, 터키와 노르웨이 승점 18로 그 뒤를 쫓는다.

17일 최종전 네덜란드-노르웨이, 터키-몬테네그로 경기 결과에 따라 조 1, 2위가 정해진다.

유럽 플레이오프에는 12개 나라가 출전해 3장의 티켓을 놓고 겨루는데 여기에는 포르투갈, 스웨덴, 이탈리아, 웨일스, 체코,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러시아, 폴란드, 북마케도니아 등 10개 나라가 올라 있다.

남은 2위는 D조 2위(핀란드 또는 우크라이나), G조 2위(네덜란드-터키-노르웨이 중 하나)에게 돌아간다. /연합뉴스

### KIA 20일 '2021 호랑이가족 한마당' 온라인 행사

KIA 타이거즈가 20일 온라인으로 '2021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올 시즌 열정적으로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후 3시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초청 없이 KIA 공식 유튜브 '가TV'를 통해 온택트(Ontact·온라인대면)로 진행되며, KIA 선수단은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다양한 비대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시즌 영상 상영 ▲선수단 인사 ▲호마당게임 ▲타이거즈 복면가왕 ▲경품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호마당 게임'은 올해 첫선을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모티브로 한 '생존 레크리에이션'이다.



20명의 선수가 참가해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음악·인물 퀴즈 대결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호마당 게임'은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되며, 사전 녹화를 통해 20일 팬들에게 공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